



4.5 2002년 6월 3일 809호
주 제 기 획

우리도 무슨 수업인지 알고 듣고 싶다!

우리학교 강의 계획서 및 평가서 실태와 타학교 사례 비교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시 학생들이 그 과목이 어떠한 내용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험 및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수강신청 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강의평가제는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난 후 수업과 평가방식, 교수의 수업태도 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일컫는다.

서울배움터 종합생명과 의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의발추)는 학기 초부터 교수처를 상대로 강의 계획서 미제출

시정조치 요청을 했다. 하지만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지난 후 확인해 본 결과 전공·부전공 1,091개의 과목 중 332개 과목의 강의계획서가 미제출(30.43%)였고, 교양은 407개 중 62개 과목이 여전히 미제출(15.32%)된 상태였다. 또한, 그나마 올려져 있는 강의계획서도 급하게 올려 형식적으로 올려진 과목이 많고 지난해 강의계획서를 그대로 올린 과목도 있었다. 의발추는 "핵심 강의를 삼 때에도 꼭자들을 살펴보고 사는데, 한 학기 동안 듣는 강의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름만 보고 선택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연세대의 경우에도 2001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양강좌 591개 중 수업계획서를 작성·배포한 강좌는 267개인 45.17%에 그쳐 우리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희대의 경우 강의계획서 제출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제출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강의평가제는 우리학교의 경우 성적학인 장에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며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강의평가평점이 높으면 '교육업적평가'에 의해 추가점이 있다. 강의평가의 결과가 교수인용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직원은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장난으로 평가를 할 우려가 있고, 장난으로 한 평가가 잘못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교수평가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강의평가결과 하위 5%에 연속 2회 해당될 경우 재입용에 문제가 개연된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교원업적평가규정)

강의계획서 작성 / 보고서 실시	미작성 1회 미제출 1회	-1점
강의 평가 실시	미실시 1회 미작성 1회	-2점
학사 행정 기밀 준수	1회 위반 1회	-0.5점
교원의 과외로 인한 성적정정	1건당	-1점

*학사행정 기밀이란 시험지, 성적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의미한다.

학원내 강의	1회당	+3점
가산대학 강의	1회당	+2점
강의 평가 결과 (1~5 등급제)	2.50점 3.00점 1회당	+1점
	3.50점 4.00점 1회당	+2점
	4.50점 1회당	+3점

'교양강의 평가 백서' 발행해 강의 질 향상

각 과목당 2인의 모니터 모집해 강의의 평가 진행

11기 의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의발추)에서는 2002년 1학기 교양강의를 대상으로 '교양 강의 평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강의평가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우선,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직접 풍광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한다는,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강의의 평가는 학우들에게 수업 선택을 할 때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강의계획서 및 평가, 학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2학기 수강신청 시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의계획서만 보거나 친한 선배들의 도움으로 수강 과목을 선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과목당 2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 강의평가기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번 행한의 강의평가기 모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의 질의 향상을 바라는 우리들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 강의평가에서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의발추는 설문과 면담을 제외한 교양과목에 한해 실시하며, 각 과목당 2인의 모니터를

모집해서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해서 진행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 서술이 아니라, △강의 계획서 △강의 내용 △강의 방법 △교수 및 학생들의 강의 준비 △강의 환경 △교수자 △강의 시간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등 총 7개의 문항에 대해 서술적으로 세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강의평가는 수강신청 이전(7월 중순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각 학생의 질 과량, 학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2학기 수강신청 시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의계획서만 보거나 친한 선배들의 도움으로 수강 과목을 선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과목당 2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 강의평가기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번 행한의 강의평가기 모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의 질의 향상을 바라는 우리들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 강의평가에서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서세영
(의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교육부장)

학내 고급 룸펜 '시간강사'

법률상 지위나 신분 보장 없어 열악한 조건 속 강의

학생들이 교양강의 수업시간에 만나는 대부분의 강사는 시간강사이다. 현재 열악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이다. 실제로 수업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학들은 교양과목의 절반 이상(53.2%)을 시간강사로 매칭하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국립대 36.68%, 사립대 39.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현재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치만큼의 대우가 따라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해 교육관련법으로는 어느 곳에도 대학시간강사의 지위나 신분을 보장할 아무런 조항이 없다. 또한 임금면에서도 시간강사의 불이익은 상당하다.

미 언급했다시피 교양 강의의 50%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못 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본보의 설문조사(789호)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월임금(52.17%)이 임금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47.83%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임금문제에 대해 강사들의 60%는 강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을 쪼개 다른 생업전선에 종사한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시간강사 한달 평균수입이 78만원(정부 최저생계비 99만원)인 상태에서 그들이 강의에 투지하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들어 갔다.

이렇듯 학생들의 강의 질 확보를 위해서도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점점 박사학위 소유 강사는 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학교의 대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학생들의 보다 완성된 강의를 위해서라도 강사들이 생계 고민대신 수업과 연구연구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이렇듯 시간강사 한달 평균수입이 78만원(정부 최저생계비 99만원)인 상태에서 그들이 강의에 투지하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들어 갔다.

이렇듯 학생들의 강의 질 확보를 위해서도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점점 박사학위 소유 강사는 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학교의 대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학생들의 보다 완성된 강의를 위해서라도 강사들이 생계 고민대신 수업과 연구연구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도 타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배움터 시간 강사로 2013천원 선, 용인배움터가 2017천원선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거기에서 발증하는 적은 강사료조차 받을 수 없다. 또한 시간강사는 법률상으로 정식 교원이 아니므로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는 위치 때문에 언제 쟁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한다. 또한 1년중 절반기약을 차지하는 장학금에는 연금도 지급되지 않아 암울할 뿐이다." 우리학교 시간강사 중 한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시간강사의 처우문제가 점점 더 되는 이유는 시간 강사의 열악한 처지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시간강사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이 있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대학에서의 시간강사의 임금과 여러 보장 제도 등이 완성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학생들이 질적으로 완성도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7000원 인상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강사료도 일정 부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열악한 시간강사의 환경 중 가장큰 단거리로 해결될 기미해본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타대학 시간강사료 현황)

(99년 기준, 단위: 원)

학교명	연세대	이화대	경북대	한국방송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시간당 강사료	24,000	25,000	27,000	27,000	28,500	30,000

posco

네 꿈을 향해 쏘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을 지닌 젊은이여!
누구보다 가장 막강한 실력을 지닌 젊은이여!
네 꿈을 향해 - 포스코를 향해 - 젊음을 던져라!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POSCO 신입사원 선발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포스코가 새로운 신입사원을 기다립니다
내 신원자람 같은 세상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19,000의 신입사원이 이제 미래 주역이 될 새로운 신입사원을 기다립니다.

1. 해 당 정 공
 - 금속, 기계, 전기전자, 화학, IT, 전자, 상권, 법학, 어학
2. 지 원 자 격
 - 학 령 : '02년 5월, '03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대학원 포함)
 - 연 령 : 75년 1월 19000 출생자 (사는 73년 1월 19000)
 - 성 령 : 전년도 성적 평균 80점이상자 (사는 대학원 성적)
 - 병 령 : 필 또는 면제자
3. 전 형 방 법
 - 인원비율 : 지원자 중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 선 (상세하게 취업정보문서)
 - 면접방법 : 실용영어, 면접, 어학평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우수자 선별
4. 지 원 방 법
 - 취업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지원서 작성 및 추천 ID 부여 (접수기간: '02.6.4 ~ 6.12)
 - 추천 ID로 지정된 POSCO 채용시스템에 On-Line지원서 등록 (6.13 ~ 6.15)
5. 기 타 사 항
 - 상세한 지원방법은 대학 취업정보시스템에 추천 ID와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사실 인력관리팀에 문의하십시오. 02-3457-1600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듣고 싶은 수업이 없다!
교양강의를 살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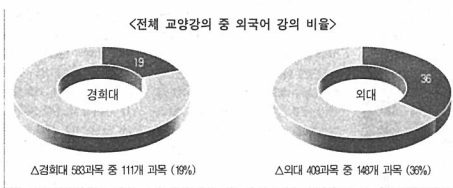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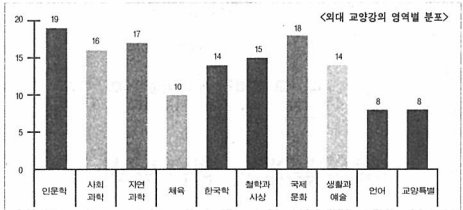
외대의 장점 살린 교양강좌 어디 없나요?

포괄적 범주의 커리큘럼으로 내실있는 진행 어려워, 세분화된 강의개설 요구

현재 외대에는 15개 영역에 걸쳐 총 409개의 교양 과목이 개설돼 있다. 이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용외국어 영역 140개와, 군사학 2개 과목을 제외하면 267개의 과목이 있다. 그러나 동일 과목이 평균적으로 두 번씩 개설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과목 카탈로그는 12개 영역 141개이다.

우리학교 교양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국어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 비해 실용 외국어 영역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학교 차원에서 추진하는 1인당 1개 이상의 외국어 습득이라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양있는 카리큘럼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란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카리큘럼이 시대의 3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며, 기업에 서도 전문화된 정보와 소양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관련 교육은 아래에 소개되 나나 2, 6개 카리큘럼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대학에서는 인터넷, 보안, 컴퓨터 및 네트워크, 컴퓨터 그래픽, 암호학,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경영정보 시스템,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등 다



하고 세분화된 강의 개설로 정보화시대에 부
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커리큘럼이 너무 포괄

유복재
〈의대발전학생추진

〈 정보화교육 관련 강의 현황 〉

과 목 명	개설시간수
인터넷의 이해	4
정보사회의 통계활용	1
컴퓨터의 이해	6
EXCEL을 이용한 통계분석	1
전산학개론	2
SPSS통계분석	1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이제는 바뀌야 한다!

연세·서강대-다양한 수업제공, 경희대-총학생회 직접 과목 선정

타 대학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다른 대학의 경우도 우리학교 교양과목 커리큘럼과 눈에 띄게 다른점은 없다. 하지만 그 커리큘럼 속을 들여다보면 그 구성에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만족스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레로 연계대의 교양과목 중 '예술과 체육 영역'을 살펴보면 테니스, 농구, 축구 등 일반적인 과목과 함께 태권, 달호, 요가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줄 과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서강대의 경우에도 '포드만 프로그램', '국어 방편론' 등과 같은 그랑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기보다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과

해서도 '영어학 개론', '영문해석'과 같은 일반적인 수업부터 '영어 형태론', '영어 연철 연습', '인터넷을 통한 영어'와 같이 영어에 대해 세분화해 다양하게 접근하는 수업들이 마련돼 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확보를 위해 총학생회가 직접 과목선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매년 개설 강좌 11개 과목, 감사 추천권을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으며 그 참여 비율도 1년에 1~2과목씩 늘려가고 있

이렇듯 다른 학교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확보를 위해 학생들이 과목선정에 참여하고 개설 과목에 대해서도 과목별로 세분화시키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개설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illegible]

기고 - 교양강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몇가지 이유

왜 교양강좌인가?

교편자의 사대의 이상적인 인간은 곧 '교양인'이었다. 그때 그 개념은, 당대 최고의 미덕이었던 절제와 겸손, 정중으로 무장한 인간을 뜻했다. 즉 전인격(全人)의 인간을 지향했다는 얘기다. 문학은 음악, 미술과 교양했고, 철학은 문학으로부터 그다지 먼 거리에 있지 않았다. 교양은 아예에 대비되는 극도로 문화적인 모습 그 자체였으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에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했다.

서민들의 힘과 지식만큼은 곧 '교양'을 통해 확보된 빈민학의 상반적 및 시교로부터 나온다. 빈민학 국도로 상반적, 사회화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주위의 일상은 이러한 사회적 인구의 구별을 잘 보여주는 데도 그렇고, 한 열역의 정경화로 지각되는 만큼에도 타당한 모습과 시간의 부자가 요구될 정도로 전공의 세분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나라이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전방적인 사회의 부위가 공식 "특성적인" 것을 열화하는 오늘날의 교양과장은 혼란 미를 그치지 부위에서 못하고 있다. 열역적으로, 전전 부위기 속에서 '교양'을 포함한 공학 기의 확보는 이 세 배대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에도 열역적, 사회화, 사회 열역적인 것은 '교양'과 세 개의 지각 인물은 절친한 '동행' 사상이고, 철학자인 동시에 소설가인 사람들이 많을까? 왜 그 사립들은 자기들이 옳음을 전진하고, 전진하기가 문학적 정경의 남나를?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이 물고 은 정보 혁명 속에서 지식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 대한 불투명한 경쟁력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과연 정보 혁명이 물고 은 새로운 사회에 제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함께 체득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전문가의 양산이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편협한 지식, 일방적 해석, 허위 의식이 통사어 되고 넘쳐나는 현상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된다.

지식의 배가가 곧 집단적인 히스테리 및
광기와 종종 연결된 모습은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대학에 개설된 수많은 교

양강자들은 전공 영역이 제공하지 못하는 종합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만이나, 학제간의 교류를 활발히 수행하는 데만이나 자라
잡고 있다. 비록 시수에 열악하지만 철저하
게 기능적인 모습을 띤 많은 양강자들이
철학, 역사, 문화와 같은 '무한한 지식'을
비롯하고 있기도 하지만, 양강자들 상상의
심각 부분은 양강자위를 통해 축소, 혹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도 부인할 수 없다. 전
면보다 양강자위를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여가에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양강자위를 집중강자들과 대립적
개념이기는커녕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현에 있다. 이것이 그 집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모든 것이 '문화'라는 이름 속에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교양 강요자들 중 문화는 사물이다. 문물 속에는 시, 문학과 있다. 미술, 음악, 건축, 철학 등 서양을 중심으로 한 19세기 모든 개념들이 융합돼 있다. 이 개념들이 문화 이해는 곧 문화에 맞닿아있던 인간의 지적 도덕에 곧한 이해 자체이다. 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족학이 없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평가들은, 교양강요와 인간에 대한 대량 권력은 시대를 거꾸로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이 인간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지역화되어온, 지역화되어온 인간, 문화와 어둠 등과 같은 모든 것에 대립물이 더욱 선명하게 나온, 돌출이다.

하에 달한다.

최근에 아수온 부분도 아직은 많다. 비교 학적 관점을 확보하게 해주는 팀티칭 과목 의 다양한 개발 및 활성화, 이 강의들에 대 한 효율적 행정 지원, 시대의 조류에 걸맞 는 교양과목의 개발, 방만한 교양교과목들 의 정리, 새 교양강좌 개설과 관련된 시속 한 의사 수립체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반영 등이 그것들이다.

‘뛰는’ 제목과 내용에 골몰하는 모습이
나, 선정주의의 범람 등은 한결같이 경계해
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상빈
〈불어과 강사〉

**중국어
전문학원**

고려중국센터

개강 6월3일
(현재 상담 접수중)

"3년연속 정상을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고급HSK(9-11급) 합격자명단**" - 최고의 명강사진!

권민승, 김미정, 김병현, 김성수, 김정은,
김아영, 김영주, 김우홍, 마진형, 박민진,
신경아, 신혜인, 이동은, 이진정, 이윤희,
이정민, 이정옥, 임나영, 임미선, 임영석,
장미현, 조진목, 조현주, 최철용 (이상 24명)

◇고급 (HSK9-11급): 편지쓰기 (전남대학교교수, 대외한국교사자격증 보유)
◇중급 (HSK6-8급): 완원필 (전시대학원 한어과 석사출신)
티원제외 (배비정사대 한어과 출신)
◇초급 (HSK4-6급): 황하이외 (중남대학출신)
메이수 (전 중국사회주의대학 부교수)

"중국어 관광통역가이드" - 3년연속 최다 합격자 배출!

2000년 상·하반기 관광통역가이드 총 147명 배출	통역가 객관지내를 하기로 2000년 12월 28일 실시됨, 시험은 2시간, 100점 만점제, 60점 합격
2001년 상·하반기 관광통역가이드 총 154명 배출	
2002년 상반기 관광통역가이드 87명 배출	

통역가이드란?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1년에 2회 자격증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은 중국어 듣기,
말하기 및 필기(중국어, 일본
어, 영어)로 나뉘어 있다.

 한국 속의 중국 **고려중국어학원** 1호선 종각역 **737-8255**

여성의 권리? 남녀가 같이하기 나름!

학내 여성정치세력 진단과 해결책

용인백운동에 있는 루마니아어과의 정원은 40명이다. 올해 입학한 02학번 새내기 중 남자는 단 8명. 루마니아어 과 새내기인 김아람은 "우리학번은 그래도 학생들 말이 많은 편이다"며 "보통 한 학년만 남자가 많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4:1정도로 학생들 이 남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 과의 대표인 과회장은, 이상하게도(?) 남학생이다. 여학생들이 80%를 차지하는 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대표자가 20%의 남학생 중에서 선출되는

이런 현상은 무니나이어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연시되어버린 우리학교의 현실이다. 2002년 1학기 현재 우리학교 재학생 14,958명(서울 7,767명, 용인 7,191명)중 여학생의 수는 7,769명으로 남학생(7,189명)보다 580명 이 더 많으며 이는 배움터별로 나뉘어도 마찬가지다.(서울 - 여자 3,950명·남자 3,817명, 용인 - 여자 3,819명·남자 3,372명) 대내에서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전체학생의 20~4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학교 처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아무계열에
선 보통 2:1, 심하게는 5:1까지 여학생
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
다. 그런데 우리학교에 있는 총 66개의
과(서울 29, 용인 37)중 여학생 과회장
은 단 11명뿐(서울 9명, 용인 2명)이다.

여화우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많던 여학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난 4월초, 용인배움터 총여학생회가 각 단대나 과·동아리 등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 ‘여학

생태자원을 최대한 소비할 때 대가적으로 얻어 줄 금전이다. 총여유생산액에서 이윤은 (총유량 - 단위가격 × 유량)은 '여유생산액'이 대가생산액, 즉 적극적 - 유체적 가치로 여겨지자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회의를 밝힌바 있다. 유체성을 띠고, 그 너머의 능력이나 고장생산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다고 것이다. 이것은 '대체적 인 전환능력'이라는 여유생산액의 가치 (대표) 사자를 깨닫는다. 인간과 사회적, 사회적 제자본은 이윤(총 - 0) 학반)정도 "회거자본만 해도 과잉이 아니라 인(인)을게와 없었고, 인간과 사회적" 오모임이 아니라고 한때는 말을 들었다"는 "당리" 인간(사)자(자)를 갖는 것은 진로 얻었다" 바에 여(학)생의 적극성과 주체적 부활을 문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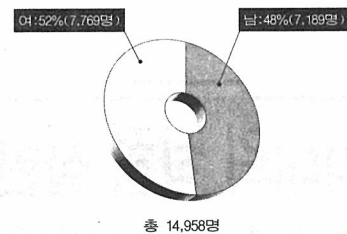
하지만 여학생들에게만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부경여학생회장 정세춘(동유류·청기라니) 99안은 "2학년과 과대표를 뽑았는데 아무런 의의도 없게 봐줬고 예비비 선배들에게 묵살되고 나는 그저 (예비역들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할 뿐이었다"고 말했으며 총여학생회장 이정은양은 "3·3 법칙이란 것이 있다. 여학생들이 대표자를 맡아 (남학생보다) 3배의 공을 들여도, 3분의 1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3년도 남지 못한다"며 "다만 남학생의 여학생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지적했다. 채코어과 과회장 조인혜(00)양도 "선거에서 남자선배와 경쟁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남자니까' 그 남자선배가 왜안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한다. 실제로 많은 과에서 선전부장은 여학생이, 기획부장은 남학생이 맡는 것이 하나의 정형처럼 되고 있는 것도 이런 편견의 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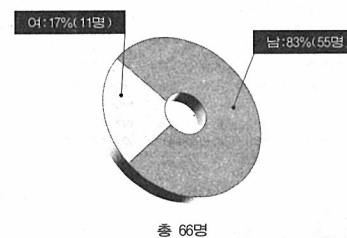
의식전환 · 적극적 활동 요구

“과연 남자는 여자보다 예하하는가? 남자의 외모는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사회에서 한 존재로 남고 있는 사람의 외모를 가짐. 그래서 남자는 CEO, 대통령, 국회의원 등 한 조직을 지배하는 사람은 거의 다 남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여성 정치 지도자라는 위치를 차지한 최순실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여성당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대안이 총리가 아닌 후임자를 생각할 때, 그리고 대안 후보가 없는 총리를 수습하고 차기 총리를 뽑을 때 많은 영국과 노어 여인이 자기 자기의 어머니에게 ‘남자가 총리라고 되느냐’고 물었다는 일화를 생각하면, 알아야 할 것은 여하튼의 편을 찾는 일은 아니나 모두의 의지와 더불어 여는 여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힘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양참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우리학교 재학생 남녀비율(2002. 1학기)>



〈우리학교 과회장 남녀비율(2002. 1학기)〉



지난 5월 30일(목)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한 '여성문화제' 행사 모습

여남평등을 넘어 여성해방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자

| 기고-여성주의 학생회와 정치세력화

**묵묵히 지속되어왔던
가부장적 풍습**

아마도 열심히 투쟁하여도 여학생이
총학생회 대표를 할 수 없었던 대학시
절이 있었다. 남학생 12명도 군대를 갔
다. 그 후보가 표를 더 많이 확보하리라
는 선전 전략 때문이었다. 누구도 그런
대화를 꼭 그에게 하고도 말하지 않았
지만, 학생회장을 하던 여학생들은
지안스레 이회록 단체·총학생회에서
집행부위원 활동하게 되었다.

대개 3학년, 내과와 학생회장을 한
때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 선배
는 여자가 학생회장직하는 것이 마땅
치 않다고, 간혹 연말 예비결산 회의
와 학생회직원 무용담을 과장되게 늘어
놓을 때가 있었다. 가부장적이고도 암묵
적이 이 둘의 공통점이 비정규이다.

평등권 확보를 위한 투쟁

99년 최초로 학생성직회가 남녀공학 사상 최초로 여성성직회가 되었다고 많은 언론이 이야기했다. 이후 조종석, 성병 계, 조병 급속도로 학생회 대표의 성비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80년대에 비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의 사회직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결과들은 남성중심의 사회가 얼마나 대가없이 남성편중의 틀을 얼마나 주저하지 아니하길 하고, 학과, 직전, 그리고 그 외 기타 국공립자 여성들이 투쟁한 성과물이다. 여성합탈단, 여성공공의 확대, 육아보육시설의 확충, 성직소속자들의 인권 등 경제의 출발선에서부터 여러 사회적인 여건이 많을 수 한국사회에서 그들만의 애절한 투쟁과 노력

여성주의의 정치세력화
성차별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
특히 연고주의와 부정부패로 똥통 뭉친
한국 보수정권에서는 더욱 더 여성이
산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여성과의 동지적 관계를 전혀 못 느끼는 이들은 이른바 '병태여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와 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즉 현 여성정착인들이 여성의 이해를 실천적으로 대변하거나 여성주의의 실질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얼마 전 박근혜 지사를 둘러싸고 갑을논박한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성별화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아닌

라 '여성주의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현실적 당선가능성을 위해 애써 강한 척 돈과 권력을 가진 척, 자기 땅에서 유배되지 말고, 여성해방 깃발 아래로 모일 수 있는 혹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 출발점의 좋은 예가 바로 작년 10.25 사회당 동대문(을) 여성 해방선거이다.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매력을 지닌 의사소통구조, 너무나 일상화 되어버린 폭력적 언행을 성찰할 줄 아는 윤리성 등을 골자로 운영되는 것이었다. 여성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공간의 질적변화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적 토대들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재배치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화적인 정치적 행보를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야루

〈여성해방연대 정책선전국장〉

**여성주의적 재구성,
그 참여와 실천**

여성주의 학생회를 고민하는 후배들
을 만났다. 여남평등을 넘어 여성해방
의 염원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는 친
구였다. 그녀가 상상하고 있는 공동체
는 수평적 인간관계, 조금 느릴지라도

야루
《여성해방연대 정책선전국장》

여학우들끼리... 한번 보봐!



녀는 카스트 제도 하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인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원이 되어 천민 계급을 위한 사회운동가로 일하게 된다. 영화는 억눌린 자와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쳤던 그녀의 삶의 전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출마동기, 출마과정, 의회활동 등으로 나눠 여성정치참여의 경과와 성과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다. 여성의원이 선거운동과 의정활동, 주민치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출판사: 한울

된다. 영화는 억눌린 자와 여성을 대

변하는 정책을 펼쳤던 그녀의 삶의 전
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

사이트 - 한국여성정치문화 연구
소(www.kwp.or.kr)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간담회 토론회 세
미나 등의 정보가 올라오며 여성의 의
회진출을 돕는 사이트이다.

잡지-F
가부장제, 군가산점 제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낙태, 결혼 등 모든 기사를 여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계간 페미니스트 저널이다.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기존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똑똑한 여성학 교재'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재미있는 잡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용성 수습기자

unquest@hanmail.net

제4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안산) 특별편람 -	
1. 모집 과정 및 원천	
가. 전문상담교사 30명 과정	4면
나. 전문상담교사 30명 과정	4면
2. 지원자격	
가. 대학 3학년 학과별 - 중등 2년 전공사 포함해 자격증은 거의 자동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있는 교육교원	
3. 전형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우리 대학과 입학원서제 작성으로 제출한 우리 대학원 소정 서식)	1부
나. 대학 졸업증서	1부
다. 대학 전공별 성적증명서(1000점제 성적증명서 2포기)	1부
라. 교육학 전공서 사본	1부
마. 대학 및 경력증명서	1부
바. 위임장 (중복 이수 과목 관련 연구수업 서식 - 위임장 있음 제출하지는 사함)	1부
사. 사진(3x4cm)	3매
5. 전형 일정	
가. 원서 접수 및 접수료: 2002. 6. 10(월) ~ 6. 19(화)	
교부: 입학원서 24시간/24시간 접수, 교부비 14,000 ~ 21,000	
나. 전형원서 접수: 2002. 6. 29(목) 14:00	
다. 합격자 발표: 2002. 7. 5(금) 11:00	
※ 원서 접수: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안산)을 통해 기간에 맞게 인터넷으로 교부한다. ※ 원서 접수: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안산) 웹 상에서 원서제 작성 - 출제일이 낫던 후 우리대학 웹 상에서 우리 대학원 교육대학원 제출한다. (8월 4일 14:00~21:00) ※ 웹 상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http://www.hufs.ac.kr	
입학 문의: 교육대학원 교무부 02(963)-6881, 02(961)-4116  한국외국어대학교 (11-30,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200 (전철 5호선 가산역 하차))	

고한자적복합시험검정원서 제출 공고

2001학년도 후기 (2002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한자적복합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리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 래 -

1. **제출대상** : 사립대학 및 고교지정자를 아우른한 자는 2001학년도 후기
(2002년 5월) 졸업예정자

2. **제출기간** : 2002. 5. 27(화) ~ 6. 4(금)까지

3. **제출장소** : 서울캠퍼스 → 사립대학교학과
원인캠퍼스 → 원인대학교 교무연구지원과

4. **제출서류**
가. 우수시험점유자(우수교수점수 500원 권 2매 부록) 1부
(의사제출대상인 재검대학 교과목 제외)

나. 우원시험점유자 1부
※ 제 2권과 및 복수응시자는 교과목당 우수점수 500원 권 1매 추가하여 제출

5. **응시자격**
가. 고한자적복합시험검정원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고한자적 복합시험 발급 소급 없음
나. 고한자적복합시험이제시험결과에는 신청비 환원을 이수한 자라도 제1(제2, 복수) 응시 및
교과목이 각각 4월 30일 이전까지야, 교과목은 4과목 및 전공필 (제 2권과 및 부속
포함) 1권이외에 추가하여 응시자는 고한자적복합시험검정원에서 시험적 처리 됨

2002. 5. 17

사 범 대 학 장

공 고

“농촌부서활동의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2학년도 하계 농촌부서활동을 대한 학적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신청 일정을 통보함.

- 일자 : 수강신청 - 2002. 6. 10(월) ~ 6. 14(일)
- 장소 : 제대대학 교내
- 방법 : 교내에서 비정규 “사회봉사 교육과정 수강신청서” 작성, 제출
- 참고사항

1. 취지 : 이 학교는 사명 확립을 위한 학생 진흥 활동 일환으로 사회봉사(이하 제대인원)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외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소수의 사회적 봉사자를 대신하여, 경쟁력을 세기 위한 것으로도 결국 교내교육 중 ‘사회봉사’의 유효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로,
2. 학칙
 - ① 이수학칙은 제2장으로서 학칙
 - ② 농촌봉사활동의 사회봉사 학적 인정은 정규학기 이후에 이수하여야 하는 별도로 인정됨.
 - ③ 농촌 봉사활동의 학적 인정에 있어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농촌봉사활동의 집계를 해산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
 - ④ 농촌봉사활동 후 최종에는 농촌봉사활동 기록표(제책) ‘사회봉사’ 항목을 채워줄 수 있음.
 - ⑤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봉사’ 학적 취득은 1년 1회 한도임.
 - ⑥ 농촌봉사활동의 학적인정은 농촌봉사활동 실적 제작성과 성적표로 인정됨.
3. 평가
 -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은 ‘Pass’로 등재함.
 - ② ‘사회봉사’ 학점은 졸업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음. 정규성적 평가지역, 전학년 성적 등에 관해 허락없이 및 평가지역에서는 산출하지 아니함.
4. 기타
 - ① 농촌봉사활동용 ‘사회봉사’ 학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하여야함.
 - ② 농촌봉사활동의 학점 인정은 전학년 전체 농촌봉사활동용 교과목 인정됨.
 - ③ 농촌봉사활동의 기록표 ‘사회봉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농촌봉사 활동용 ‘평가’ 및 ‘결과’ 장에 기재함.
 - ④ 사전 신청 마감일 및 농촌봉사활동 후 1주일 이내에 농촌봉사활동지에 기재된 내용에 맞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2002. 6.

교 무 연 구 처 장

Unique & Best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 20주 전문언어수업과 병행 -

■ 모집과정
 ○ 20주 집중 수업 : 아산과정, 1학년, 일본어, 중국어, 영어, 디자인, 스페인어, 노어 등 21개 외국어

■ 교육기간 및 시간

과 차 명	교육기간	수업 시 간	수업 요 일
① 주언과정	2002. 7. 29 ~ 2002. 12. 13	09:30 ~ 16:20	월 ~ 금 (주 5일)
② 아산과정		18:40 ~ 21:30	

■ 지원방법

- 원서접수 : 2002년 6월 25일(화) ~ 2002년 6월 21일(금) 인접부 접수
 (원탁대 / 평등 / 순회 접수가능)
- 지원서류 : 원 18세 이상 (영도제 1학년 이상)
- 원탁대 인터넷 접수 : <http://www.hufs.ac.kr> ~ 연수부 on line 접수

■ 모집생 시기(Level Test)

- 영식 및 영소 : 2002년 6월 29일(토), 호종근 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수업
- 제1차 언어능력 Test (독해, 쓰기) : 1, 2차, 동국대 남부캠퍼스, 한재에 실시
- 면접실시 일정 : 2002년 7월 10일(수)

■ 등록시기 및 장소

- 2002년 6월 30일(월) ~ 2002년 6월 21일(금), 외국어연수행정 및 제1캠퍼스
- 제1캠퍼스 : 132-0400515, 한국외국어대학교 (종로1길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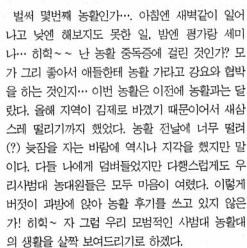
■ 기타 안내

- 일본어 및 적성 주수하는 수업이고 수취년도 차이에 따라 학과별 및 수취인 학과 (대학 제정)에 졸업생에 한함
- 교육기간 중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연어교육) 등 20개시설 이용가능
- 문의처 : TEL. 960-4174, 5, 962-7119, FAX. 962-0575

한 국 의 국 어 대 학 교

외 국 어 연 수 평 가 원

- Best Friend for Your Unique Dream -



농활을 가려고 온 사람들은 사
것 없이 모두 삼기된 얼굴로 불
었다. 모두들 처음의 마음이 된
속도로 덕분에 우린 길지 않은 사
했고 각 마을 책임자분들의 트러
했다. 여기서 잠깐 농활 가서만
이 바로 이것이다.

전원일기에서 꼭 한번은 봤을
뒤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기타를
서서 한곡을 타고 모자 안달이
아 한다. 서서 맞은 잘못하긴
가는데 웅 기타인가. 드러미만
만 재미는 있다. 허나 이리 즐

[illegible]

모든 작업이 돌아왔다. 12명이 한 인원을 제외한 조
개는 복직 셋씩 5개의 작업에 투입되었다. 고만 나
기, 포도밭 비닐 바꾸기, 고구마 밭일하기, 고추
결구기 치기등, 피쳐밭할 돌발 상충으로 작업 정지
시도 하였으나 다른 이들과의 조율로 계속 투입되
할 때 고추밭 아버님이 급히 오셔서 도와 달라고
해서서 긴급으로 투입되었다.

이제 거의 나가는 데는 세 상충으로 인삼 막걸리를
주셨는데 2도 오히려 많았다. 다음에 의문시
하기 기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다름에 꼭 한 번
오리라! 잔을 딱 1개 가져오셔서 나와 우리 세배가
에게주신다! “잔배배님! 받아치요, 맞았지요?”
하니까, 그제야 복직년도 되리라! 그 때 아버지 막걸리
와 우리는 잊었지만 없었다. 다만 음주작업으로
없는 손놀림이 거칠어지고, 이제 거지꼴과도 익지도
않은 고추밭 바나! 하나, 아예 가져와 버리고자
한다! 도둑만 부린 딸과 조삼한 처자였다. 한탄. 다른
국에서 돌아온 부님 책망하기 현혹되어서, 이제
보는 삼살에 처음엔 다들 힘들어 했지만 요령을 익
히고 나니 다들 삼살의 즐거움에 젖어 있었다.

오늘 작전엔 태워서 치는 고구마는 맨날은 애들
아기부터다. 자연 마트! 딸과 딸과 딸은 갈매에
다들 좋아하는데 씨름 때 고평아... 땀, 한. 우리 시
벌대 농협대농조합의 결속을 위해 ‘나비도’를 하
는데 재고이고 시가 하나도 전할 수 있는 자기가 똘
다. 물론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있는 자기가 마
또를 위해 똘다! 고구마! 누워서 했는데 보편원들이
못하게 했더니 웃음 가득(?)인 아내도 있었다. 매
일 매월 똑같은 방문 세기(?)인 아내도 있었다. 똘을 기

날마다 새벽 미사를 잔디밭 해서 조용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이른봄의 햇볕을 쬔다. 한 달이 지나 3기기도 두두루마고 일하는지 어떤 바쁜 시기까지도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고 판단할 때가 적과 뛰놀고 웃는 것이야 각각 호열 방문을 통해 인사를 드렸다.

역시 음식의 힘은 위대한 것일까? 야만 근근이 우리 농산물들의 모습에 마음 어루만져 각종 밥의 신 것일까? 처음 호열 방문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을 느꼈을 수 있다. 그사이 우리와 농산물들 사이에 힘을 주었고 보람을 주었던 것 같다. 또한 이젠 밥과 동네 어귀 뒷밭까지 손수 삼밭까지 술을 논다 하면서 속으로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의 고노를 칭찬하였다. 훗, 우리와 그들이 만나 되었고 한 사람이 계속 계속 푸르다 고대할, 눈앞에서 어떤 거대한 것 같은 것들은 조금 눈앞에서 일손이 부른 듯하다. 새 사방을 구할수록 일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곤 했다.

다음 여름 농장을 기약하면서 마지막날 아침 모내투를 시도할 때가 갈바 전비를 예감하는 아침을 짓는 것이다. 모내투를 끝마치고 재입하는 일을 하다가 밭을 밟을 길로 농장들을 정리하였다. 밭이 4기나 딸기 밭이다. 비로 갈바전과 더 많이 또 오래 두었다 드리고 잊지 못할 것이 아류를 따랐을 것이다. 이번 농장은 어찌할까 다스 마시려고 농장 주변 분반밭을 새로 고장해서 재입하고 있는 농장을 한 달 내 모습으로 또 잘 하고 있겠다며 다들 결의를 불고고 서로를 돌리었다.

니아영 (사범, 불교교육 9)

[illegible]

날마다 새벽 미사를 잔디밭 해서 조용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이른봄의 햇볕을 쬔다. 한 달이 지나 3기기도 두두루마고 일하는지 어떤 바쁜 시기까지도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고 판단할 때가 적과 뛰놀고 웃는 것이야 각각 호열 방문을 통해 인사를 드렸다.

역시 음식의 힘은 위대한 것일까? 야만 근근이 우리 농산물들의 모습에 마음 어루만져 각종 밥의 신 것일까? 처음 호열 방문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을 느꼈을 수 있다. 그사이 우리와 농산물들 사이에 힘을 주었고 보람을 주었던 것 같다. 또한 이젠 밥과 동네 어귀 뒷밭까지 손수 삼밭까지 술을 논다 하면서 속으로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의 고노를 칭찬하였다. 훗, 우리와 그들이 만나 되었고 한 사람이 계속 계속 푸르다 고대할, 눈앞에서 어떤 거대한 것 같은 것들은 조금 눈앞에서 일손이 부른 듯도 새 사람을 구할수요. 할라치니 너무 고맙다고 하곤 했다.

다음 여름 농장을 가만히하면서 마지막날 아침 모내투를 시도해 보자고 할지 준비를 하였는데 이젠 좀더 작게도 도박장을 끌며지니 작업은 어려웠다. 밭을 밟는 마을 경관들을 정리하였다. 밭이 어찌나 넓었을까. 비로 갈라지고 더 많이 더 오래 두들기고 드리고 잊고 못할 것이 아슬을 따름이었다. 이번 농장은 어찌한지 다소 마숙하고 눈앞의 분반농장을 두도 진행하여 되찾아온 것이 농촌이다. 나는 모습으로 더 잘 하고 있었지만 다들 결의를 높이고 서로를 돌리었다.

니아영 (사범, 불교교육 9)

이나영 (사범·불어교육 99)

영화와 음악이 땀나는 유익한 기쁨에 있어 최
 선의 역할을 한다.

한편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다가 삶 자체에
 모든 충동에 영화화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영토로 옮겨가는 경우이다. 조산경은 때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장소도 가늠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풍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까지 철학 하나 남기지 못했던 결말까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런 삶 속에서 그는 기득권층의 비밀을 맞
 추며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말년에는 무위
 의 경지에 다다르기로 심하고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기 위해 방랑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커다란 마음
 주는 풍경을 이야기 해내기 장점을 잘 이해
 하지는 못했지만 틀레 개성을 희미하게 안
 했다. 때로는 작가는 스토리는 영화를 느스
 한 느낌으로 해주고도 일관적 그리고 정밀한
 해설처럼 흥미의 아름다운 서사는 역시나
 수 재배치된 것이다.

TV의 한 프로그램은 통해 알려진 장면 거
 만

여러 다른 국가의 고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강
제에 대한 것이다. 여러 강제보다는 인식정착
부분은 중립성이 이해와 사랑을 나누는 길에서
중요하다. 후임을 돌아보아도 강국은 바꾸어놓
을 수 없는 강점을 유지하며 강화를 하고 있
다. 어쨌든 이 정점은 어느 열강에서든
도 미치는 예외의외의 제로 아는 수 있는
정점의 이기 때문이다.

영미가 주도한 일련 그 작품에서 뜻깊은
제 화위는 개성전에 시간전여 여는 총 종
어도 적국들을 반대, 열강화되어 몇몇의
총제이기는 총제이 제정되어 수 있는
기다 총제일 다른 공평한 열강이 열락하다.

애슬론 편민과나 화원은 총제이
도 한때 성향한 정제기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영미와 열강이 세계의 유명 열강에서
상을 받게 된 그들 기원들이 아니 수 없다.

이들 국가들 한국정국의 성향이 국내에서
한 나라의 국내적이 아니었으면

차자명 (서양, 독일어 이)



비오는 날의
처량함 처럼
난국의
재개발 현실로
암울한 상황이
다.

- 신형
보도사진전

최세욱
(사회·신방)

“It's fun”
이번 칸느 영화제에서 취화선을 본 한 외국
인의 말이다. 그들이 느꼈 듯이 예술 세계에는
분명히 시공을 넘어서는 공간대가 인기 미력이

리라. 영상미에만 치우치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영화는 흥미로웠다. 이 작품을 본 날, 취화선이 칸느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었다.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될

TV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장면 장면

이를 계기로 한국영화의 성황이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외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차자명 (서양, 독일어 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공/통/광/고



악속 장면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반세기만의 만남,
2000년 6월 15일 그 날의 만남이
재연됩니다. 머지 않은
또다른 그 날, 통일의 날을 그리며..

| 6·15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 통일사진전 추진위원회 |



6·15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 '통일 사진전'

- [illegible]